USDA Oil Crops Outlook, 2013.2.12.

대두박 및 대두유에 대한 세계 수요가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 대두가공품 생산량 급격히 증가

현재까지 누적 대두가공품 생산량이 많은 수준이어서 USDA는 2012/13 대두가공품 생산량을 전월대비 1,000만 부셀 증가한 16억 1,500만 부셀로 상향 조정했다. 대두박 국내 소비량은 육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한 2,990만 숏톤으로 전망된다. USDA는 또한 연중 이 시점에 대해 거의 기록적인 수준인 수출량에 기반을 두어 2012/13 대두박 수출량을 880만 숏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두가공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 기말재고량은 이례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인 1억 2,500만 부셀로 하향 조정되었다.

전반적인 단수가 높은 수준이어서 USDA는 2012/13 브라질 대두 생산량을 전월대비 100만 톤 증가한 8,3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말재고량은 1,820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에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은 단수가 소폭 하락함에 따라 전월대비 100만 톤 감소한 5,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2/13 아르헨티나 대두가공품 생산량은 전월대비 90만 톤 감소한 3,730만 톤으로 전망된다.

Domestic Outlook

미국 대두가공품 생산량 대두 공급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은 수준

금년 대두 공급량이 줄어들어 대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두 가공업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9월~12월 누적 대두가공품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로 인해 USDA는 2012/13 대두가공품 생산량을 전월대비 1,000만 부셀 증가한 16억 1,500만 부셀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대두 수출속도는 곧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속도의 감소는 미국 국내수요의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멕시코만항과 내륙 가공업계 현물가격 스프레드가 1월 동안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2012/13 대두 수출량은 전월과 동일한 13억 4,500만 부셀로 전망된다. 대두가공품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두 기말재고량은 이례적으로 타이트한 1억 2,500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및 대두유 수요 강세 지속

육류용 가축의 가치 대 사료비용 비율(feed costs to values for meat-producing animals)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축산업 및 양계업의 수익전망이 개선되었다. 거의 더 많은 가축에 대해 더 오래 사료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대두박이 소비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2/13 국내 대두박 소비량은 전월대비 15만 숏톤 증가한 2,990만 숏톤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USDA는 또한 대두박 수출량이 연중 이 시점 치고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2012/13 대두박 수출량을 전월의 870만 숏톤에서 증가한 880만 숏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대두박은 아시아, 북아프리카, EU 시장에서 점유일이 증가했다. 이 세 지역에서는 세계 1위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대두박 수입량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대두가공품 생산량 증가 뿐 아니라 대두유 추출율이 증가했으므로 2012/13 대두유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2억 7,500만 파운드 증가한 19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부는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 대두유 수출량은 전월대비 1억 5,000만 파운드 증가한 23억 파운드로 상향 조정되었다.

남미 대두 작황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 초래

1월~2월 첫째 주 사이 일리노이 중부의 대두 현물가격은 $1 상승한 $15/부셀이 되었다. 최근의 가격상승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남부의 건조기후로 인해 대두 작황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번 봄에 브라질에서 수송 장애(transportation bottlenecks)를 심하게 겪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가격상승세를 더했다. 미국 대두 재고량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으나 빠른 인도를 원하는 수입업자들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미국산 대두에 의존해야 될 것이다. USDA는 2012/13 미국 평균 농판가격은 5센트 상승한 부셀당 $13.55-$15.05로 상향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대두박 가격 또한 12월 동안 하락했었으나 1월 초 이후 숏톤당 $20-$25 재차 상승했다. 대두유 가격 또한 12월에는 47.2센트/파운드였으나 1월에 48.9센트/파운드로 상승했다. 2012/13 대두박 및 대두유 가격 전망치는 전월과 동일하다.

International

브라질의 토양 수분부족이 대두 단수를 좋게 할 것으로 예상

이번 달 2012/13 세계 대두 생산량 전망은 거의 변동 없는 2억 6,950만 톤이다. 브라질의 높아진 작황이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감소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2012/13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많은 수준이다.

이번달 USDA는 브라질의 2012/13년도 생산량 전망을 100만톤 증가한 8,3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대되는 단수가 3.04톤/헥타르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2010/11년의 기록적인 단수였던 3.1톤/헥타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두 생육발달기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충분하였다. 1월 리오그란데두술(Rio Grande do Sul)의 토양수분은 아주 제한된 강수로 인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작황은 좋은 상황이고 심지어 작년 가뭄의 절정 때보다도 나은 편이다.

브라질 대두 수확은 현재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마토그라소(Mato Grosso)에서는 1월말 11%의 수확을 마친 상태다. 많은 농가에서 대두 성숙도를 향상시키고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작물건조약(crop desiccants)을 투입중에 있으며 수확을 빨리 마쳐 2기작물인 옥수수를 파종하기를 바라고 있다.

브라질 대두 수출은 작년 3,630만 톤에서 2012/13년 3,84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의 3,660만 톤을 무색케 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구곡과 신곡의 순조로운 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달 거의 모든 브라질 대두 생산량 증가분은 2012/13년 기말재고량을 상승시키는 것을 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2011/12년도 1,300만톤→2012/13년 1,820만톤) 이는 미국의 대두 재고량 감소분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이미 신곡 선적을 위해 항만의 선박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돌아오는 수확지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대두수요는 급한 반면 항만시설은 제한되어 있어 선박대기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옥수수 선적이 여전히 활황인데 신곡과의 선석경쟁까지 붙어 주문 대기시간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13 브라질 옥수수 수출의 급등은 생산량 증가와 미국 옥수수 선적량의 급감에 기인한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미국을 올해 추월하고 세계 제일의 옥수수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브라질의 높은 트럭 의존도로 인해 운송 능력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운전기사의 부족은 올해 트럭운임의 상승을 가져왔다. 새로운 법안은 트럭기사에게 강제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곡물 수확 절정에 길에서 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각각의 운송은 완성되기 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마토 그로소(Mato Grosso)와 같이 원거리에서 그러할 것이다. 곡물저장이 브라질의 운송분야의 압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곡물공급이 농장이나 항만의 저장시설 확충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런 강수공백이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과 수요를 조정

아르헨티나에서 12월말부터의 강수량이 평소의 1/3 수준으로 표층 토양 수분을 심각하게 고갈시켰다. 현재는 적당한 하층 토양수분으로 심각한 작물 스트레스는 피했는데 이는 9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난 강수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4-6주 사이에 강수량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단수는 악화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현재까지 11월 파종된 대두의 대부분이 꼬투리 단계에 있다. 이번 달 아르헨티나의 단수가 소폭 감소해 USDA 2012/13년 생산량 예측치는 5,300만 톤으로 100만톤 조정되었다.

2012년 10~12월동안 아르헨티나 대두 가공품 누적량은 전년도 비율 대비 255만톤(28%) 정도 뒤쳐져 있다. 가공률은 아마 신고수확이 진행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대비 부족분을 메우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2012/13년도 아르헨티나 가공량 예측치를 90만톤 낮은 3,730만 톤으로 조정한다. 2012/13 대두박 생산량 감소치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져 80만톤 감소한 2,800만톤으로 추정된다. 관련된 움직임으로 유럽의 대두분 밀수입(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선적분의 도착지임)은 이번달 50만톤 감소한 2,120만톤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가공업자간 경쟁은 별도로 하고 아르헨티나의 가공공장들은 농장으로부터의 대두 인도가 늦어져 가동이 뒤처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두 농장들은 재고처리에 급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작물이 가장 큰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적 상황에서 요구가 상당히 높다. 농장들은 대두를 값싼 사일로 백에 담아 인플레이션 헤징용으로 장기보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과거 채무에 대한 디폴트 상황으로 중항은행은 엄격한 외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페소는 현실 상황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평가가 절상되는 효과와 같다(달러당 5페소). 대조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페소는 거의 40%이상 절하되어 8페소/$이다. 농부들은 경비를 충당할 현찰이 필요할 때만 곡물을 팔고 있다. 만약 대두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평가절하로 이한 곡물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수출세가 현 수준에 머물러 줄때만 가능하다.